



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, 말하고,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

목장교회 나눔지

다섯 번째 나눔지

[3월, 마음에 새기는 말씀 - 마태복음 18장 10절]

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

얼음 깨기

‘마지막을 생각하며’

교회행사

인생에 시작이 있다면, 끝이 있지요.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가치있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다음의 질문을 같이 생각해봅니다.

1_ 나에게 단 하루(24시간)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요?

2_ 예수님 앞에 섰을 때, 듣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?

3월

- 5일 상반기 양육훈련 시작
부부 사랑학교 시작
- 11일 어와나 입단식
- 26일 성례식

4월

- 2일 종려주일/성찬식
- 3-8일 고말기
“고난주간 말씀과 기도”
- 9일 부활 주일

경배 찬양

“마라나타”

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
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
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
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

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사
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
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
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

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
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

선교지

[유성재 선교사]

일본

- 모리아마 교회의 영적 부흥과 여성 모임이 말씀과 기도로 풍성하도록
- 지역 전도사역의 문이 열리고 이웃에게 복음이 증거 되도록
- 교회개척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계획 따라 준비하도록
- 말씀 사역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건강 관리를 잘 하도록

소식

한문장 큰 울림

1. 고난주간 말씀과 기도회

4월 3일~ 4월 7일 저녁 7:30~9:00까지 “우리 더 가까이_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성경의 가르침”의 주제로 말씀 강행의 시간들을 갖습니다.

2. 봄맞이 대청소

봄맞이 대청소를 4월 1일(토) 오전 10시부터 진행합니다. 교회 주변 쓰레기 처리, 각 실 유리창 청소를 진행 예정입니다.

3. 결혼 예비학교

하나님 나라 가정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에 결혼예비 커플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일정 : 5/13-6/10 (5/27 휴강) 시간 : 14:00 - 19:00

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
 가장 좋은 길은
 그리스도의 임재를
 절대 잊지 않는 것이다.

- 윌리엄 비클레이 -
 (글레스고 신학교)

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(마태복음 24장 33절)

마라나타 마라나타
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

이 찬양은 이번 주일과 오늘 목장 모임에서 함께한 찬양 가사입니다. “마라나타”는 아람어 단어로 “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초대 교회 공동체는 여러 환난 중에 있었기에, 이 고백은 그들의 인사말이기도 했지요. 그리고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갔습니다.

마태복음 24-25장은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끝에 있을 ‘심판’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.

24:1-14) “끝”이 이르기 전 마주할 다양한 상황
24:15-35) 그 “끝”에 임박한 절체절명의 상황

24장 전반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며, 예수님께서서는 이 “끝”의 시기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아니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또한, 거짓 메시아의 광신적 종말론에 현혹되지 말 것도 말씀하십니다. 그만큼, 이 “끝”의 시기에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임할 것이었습니다.

역사적으로 보면,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. A.D.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사건이지요. 요세푸스는 110만명이 넘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, 이 가르침이 성취됨을 눈으로 보고, 알았을 것입니다.

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.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는 **주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**입니다.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,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

1_새 이스라엘은 예수 공동체입니다.

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이는 곧 혈통과 민족이 아닌, **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시작됨**을 의미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여 세상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인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‘**새 이스라엘 공동체**’입니다.

[나눔] 예수님께서서 나를 ‘하나님 나라 공동체’로 받아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같이 나누어봅니다.

2_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.

본문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건 이후 ‘즉시’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처럼 이어집니다. ‘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’ (30절)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갈망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이 아닌,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바라며 세상에 맞서 살았습니다.

주님의 말씀은 모두 성취되었고, 오직 재림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요. 다시 한 번 ‘**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**’하신 말씀을 함께 붙잡기 원합니다.

[질문] 1) ‘예수님의 재림’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?
2) 재림을 생각하며, 내 삶에 회복되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?

3_예수님께서서는 심판하십니다.

마태복음 24:4-35까지 선언하신 말씀은, 주후 70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취됩니다. 이는 곧, **예수님께서서 메시아이시며,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입증하는 것**이지요.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듣고, 마지막 때를 함께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.

“니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”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,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겠습니다.

[나눔] 오늘 우리 목장 식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하고 나누어 봅니다.

나눔

주일 말씀 [이 모든 일을 보거든 / 마태복음 24:15-22]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.
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,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니다.

예수 공동체

예수님을 믿음으로 ‘새 이스라엘’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. 그 감격과 기쁨 안에 살겠습니다.

기도

재림

이 모든 일의 성취를 말씀과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.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.

심판

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. 심판주로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.